

# 순창 쌍암농공단지 입주 '활력'

### 지티지푸드 공장 본격 가동... 65억원 투자규모로 수제떡갈비·양념육 생산

순창군 쌍암농공단지에 입주한 ㈜지티지푸드 수제떡갈비 공장이 지난달 2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며,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지티지푸드 강양선 대표이사, 신정아 의장, 기업관계자 등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사업 성공을 염원하며 공장 개소를 축하했다.

㈜지티지푸드는 전주에서 잘 알려진 떡갈비 업체 '하영이네 수제떡갈비'를 운영하던 강양선 대표가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순창 쌍암농공단지에 설립한 떡갈비 전문기업이다.

앞서, 지티지푸드는 지난해 1월 순창군,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2월 쌍암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약 10개월간의 건축과 기계 설비 공사를 마치고, 8,276.8㎡(2,500평) 부지에 건축면적 1,466㎡(440평) 규모의 공장 건설을 마무리했다.

공장 내에는 급랭시설을 포함한 육가공 생산라인이 완비되어 있으며,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지티지푸드의 공장 준공은 순창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에 준공된 풍산2농공단지 (주)삼마리농장과 함께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공식을 개최하기까지 그동안 공장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한 강양선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티지푸드가 순창에 동지를 둔 만큼 순창 군민 그리고 순창 출신 아들, 딸들을 많이 채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지난달 29일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용정동(광치천변) 일원에서 철쭉(영산홍) 3,000여주를 심고, 산불예방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 남원시, 식목일 맞아 나무 심기

### 철쭉 3000여주 식재

남원시가 지난달 29일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용정동(광치천변) 일원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 공무원, 남원산림조합, 산불진화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철쭉(영산홍) 3,000여주를 심고, 산불방지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산불예방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시 내·외곽 생활

권 등 숲 조성을 위해 올해 156ha에 10여억원을 투자해 편백, 소나무, 백합, 낙엽송 등을 식재하는 조림사업을 시행 중이다.

남원시 산림복지과 안길재 과장은 "나무를 심어 산림을 계속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꾸 놓은 산림을 지키는 것 역시 더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우리 산림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뒀다'

###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 근무 요령·안전교육

임실군이 행정철을 맞아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을 찾아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보전과 오염원 사전 차단 및 관리강화를 위한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 활동

에 본격 돌입한다.

이에 따라 최근 옥정호 관리사무소에서 2024년도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임명장 수여와 함께 지킴이 근무 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주민 28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는 올해 10월까지 약 7개월간 상수원 내

불법 어로행위, 세차, 쓰레기 무단투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 처리 등 수질오염 행위 단속 활동을 펼친다.

현재 옥정호는 봉어섬을 연결하는 420m 출렁다리와 사계절 특색있는 꽃으로 이루어진 봉어섬 생태공원, 옥정호 물안개길을 비롯해 제2기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통해 운암대교 테마공원과 오트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주요 관광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옥정호 빗물축제와 출렁다리 및 봉어섬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는 만큼 불법행위 감시 활동과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수변 정화 활동을 통해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옥정호 수위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 낚시행위 등 391회의 감시·계도 활동을 벌였다.

27톤의 수변구역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옥정호 광역상수원 수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옥정호 관리사무소에서 '2024년도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 남원시보건소, 영유아 원정 진료 교통비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 3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공휴일 원정 진료 지원사업

은 2022년 4월 최초 시행 당시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진료받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토요일 오후까지로 확대하여 영유아의 의료접근성 확보와 안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가 관내 소아과 진료료가 없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관의 소아청소년과, 아동병원 및 달빛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영유아 1인당 1회 3만원(연 최대 3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감사합니다"... 임실,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 에이스농축산기계 최종민 대표 300만원 기탁 등

임실군이 최근 에이스농축산기계 최종민 대표가 300만원을, 오수면 상인회장 김황곤 씨와 오수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백영숙씨의 딸 김운서 씨가 2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김제시에서 2002년부터 농림업용 기계·장비 도매 및 수리업체인 에이스농축산기계를 운영 중이다.

임실군 운암면 출신으로 운암초·중학교를 나왔으며, 어머니께서는 기암마을에 거주 중으로 임실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최종민 대표는 "임실 운암에서 나고 자라 애착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옥정호가 대표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임실의 발전을 더욱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생산자에게 힘이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기부금이 임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운서씨는 본인의 고향이며,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의 발전

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운서씨 대신 아버지 김황곤씨와 어머니 백영숙씨가 직접 참석해 가족의 임실 사랑을 보여주었다.

김황곤씨는 "고향 임실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돕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게 되어 기쁘다"며 "딸이 이런 특별한 기부에 참여해 뜻깊고, 기부금이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군민 복리 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과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순창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최영일 순창군수 주재로 2024년도 1분기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성호 7733부대 3대대장, 윤상현 순창경찰서장, 이상일 순창소방서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2명을 포함한 총 20여 명의 통합방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 드론 공격 위협과 대응 방안, 2024년 1분기 통합방위 추진 결과 및 2024년 2분기 추진 계획 보고, 그리고 통합방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각 기관별로 발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불안한 국제정세와 북한의 지속적 위협에 따른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관별 통합방위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위 태세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구직자들에게 면접활동비 지급

임실군은 2024년 전북 농·식품 도농(都農)상생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 하는 동안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면접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면접활동비를 면접을 보는 구직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예산 6억원(국·도·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실군로컬JOB센터(센터장 조옥선) 통해 구직자들에게 면접활동비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1회 5만원 1인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사업장에 응시할 경우는 1회만 지원한다.

면접활동비 지원 대상은 임실군로컬JOB센터에 구직 신청 후 임실군 지역 내 구인 업체의 채용 면접에 응시한 사람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